

학교재 'OROOM(오룸)' 개관展 《강요배: 풍경의 깊이》



KANG Yo-bae: The Profundity of Landscape

전시개요

전 시 명 : 학교재 'OROOM(오룸)' 개관展 《강요배: 풍경의 깊이》

전시기간 : 2020.10.27 – 2020.11.30

전시장소 : OROOM (URL: online.hakgojae.com)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회화 20점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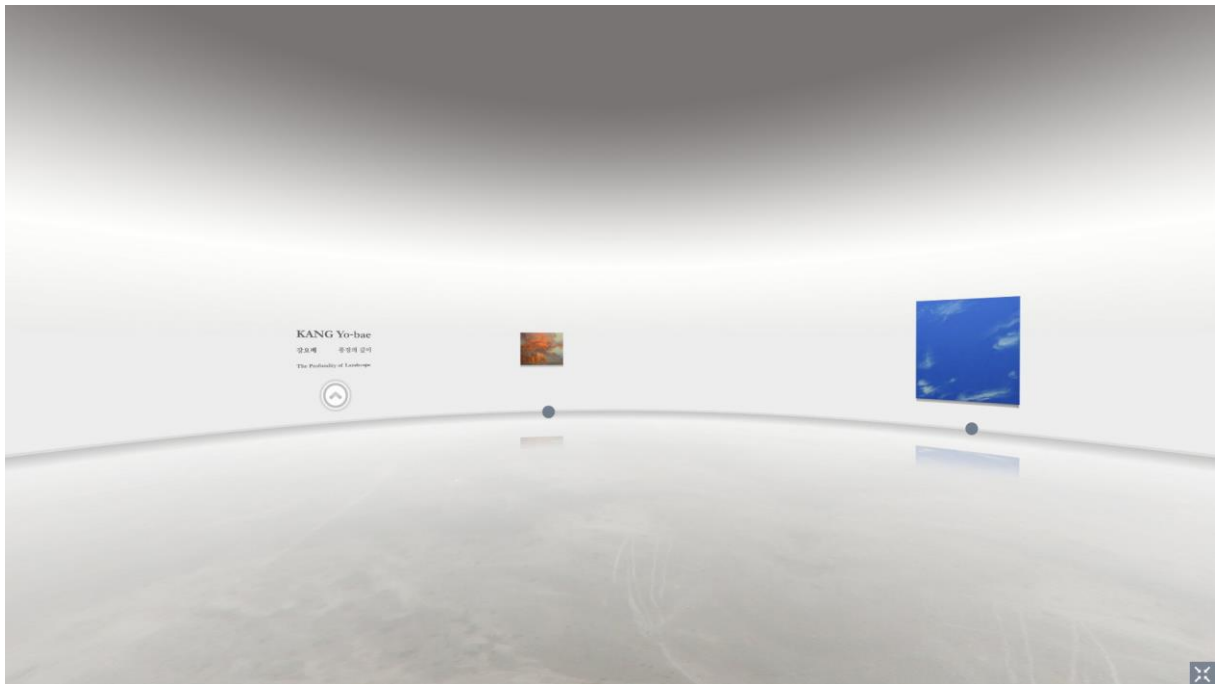
조윤성 cho@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01027-20201130_강요배, 풍경의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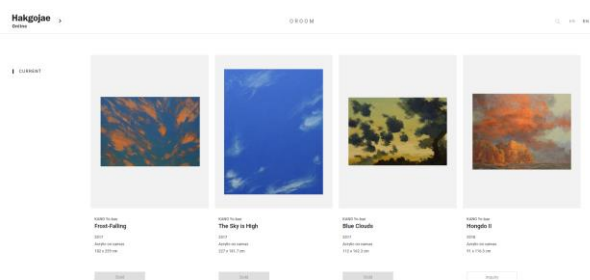
1. 공간 소개



OROOM 전시전경 ©Hakgojae Online [학교재 제공]

학교재가 가상 전시 공간인 '**OROOM(오룸)**'을 새롭게 선보인다. 공간의 이름은 'Online viewing room(온라인 뷰잉룸)'의 줄임말인 동시에 무한히 확장 가능한 원형의 전시장을 상징한다.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면 모니터 너머 드넓은 전시 공간을 마주한 듯한 시각 경험을 할 수 있다.

팬데믹의 여파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며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반을 옮기고 있다. 빠르고 혁신적인 변화다. 학교재가 마련한 가상 전시 공간 OROOM(오룸)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다. 국내외 기관들이 선보인 온라인 뷰잉룸의 사례를 유심히 살펴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학교재 OROOM(오룸)은 전시 관람의 경험을 살리는 동시에 편의성을 갖춘 플랫폼이다.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작가의 가상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OROOM 하단의 전시 출품작 목록
©Hakgojae Online [학교재 제공]



'View in Room(방 안에서 보기)'

©Hakgojae Online [학교재 제공]

2. 전시 소개

학고재는 2020년 10월 27일(화)부터 11월 30일(월)까지 '학고재 OROOM(오름)'에서 강요배(b. 1952) 개인전 《풍경의 깊이》를 연다. 강요배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제작한 회화 중 20점을 선별해 선보인다. 가상 전시장은 총 6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벽면의 출입문을 통해 각 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풍경의 깊이』(돌베개, 2020) 출간 및 제21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이기도 하다. 『풍경의 깊이』는 강요배의 첫 산문집이다. 지난 9월 '강요배 예술 산문'이라는 부제로 출간됐다. 135점의 작품과 34편의 글을 수록했다. 책에 수록한 글귀를 발췌하여 벽면 구성에 활용했다.

또한, 최근 강요배가 제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인성미술상은 대구광역시가 지난 1999년에 제정한 상이다. 우리 근대미술사에 족적을 남긴 서양화가 이인성(1912~1950)을 기리고, 한국 동시대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홍순명 심사위원장은 "오랜 시간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시대와 역사에 충실하고 다양한 화풍의 변모를 추구하는 강요배의 예술세계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4일(수) 오후 5시 대구미술관에서 열린다. 강요배는 상금 및 상패를 수여 받고, 이듬해 대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게 된다.

3. 작가 소개

강요배는 1952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제주 4·3항쟁을 몸소 겪었다. 평범한 이름을 가진 이들이 오해를 받아 색출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다. 아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어야겠다는 생각에 堯(요나라 요), 培(북돋을 배)를 써 강요배라는 이름을 지었다. 강요배는 197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1982년에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민중미술 동인 '현실과 발언'에 합류했다. 시대적 현실을 드러내는 풍경을 화면에 담으며 작품세계를 발전시켰다.

1988년은 강요배의 작업 인생에 이정표를 세운 해다.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기영이 한겨레 신문 창간을 기념해 연재한 「바람 타는 섬」의 삽화를 맡은 것이다. 이 때를 기점으로 3년 간 <제주민중항쟁사> 연작을 그렸다. 고려시대부터 4·3까지 제주 지역 민중 항쟁사를 주제로 한 역사화 연작이다. 제주 역사와 강요배를 굳건하게 연결짓는 매개가 됐다. 50점의 연작을 모아 《강요배 역사그림 - 제주민중항쟁사》(학고재, 1992)를 개최했다. 4·3의 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역사 주제화의 새 지평을 연 전시로 평가 받았다. 이후 강요배는 제주 자연과 역사를 담은 회화를 꾸준히 제작해 왔다. 2015년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하며 한국 동시대 미술사의 주요 작가로 인정받았다. 201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하여 옥관 문화훈장을 수여했다. 2020년 제21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4. 작가와의 대화

『풍경의 깊이』(돌베개, 2020)에 실린 사진가 노순택(b. 1971)의 글
「강요배와의 대화 ‘바람에 부서지는 뼈들의 파도」」(pp. 326-363) 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그림의 최종 결과는 2차원의 평면이지만,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2차원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공간의 경험이란 입체적인 것이지요. 그림은 그 입체적인 경험을 아주 얇은 곳에 추상화하고 압축하는, 그것도 교묘하게 압축하는 행위입니다. 몸, 피부, 냄새까지 어떻게든 느껴 봐야 알팍한 재현이나마 가능합니다. 우리는 표현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과정의 부산물이 표현이지. 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바람 속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추상이란, 요체를 지목하는 것, 요약하는 행위입니다. 좋은 걸 골라내는 행위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 또한 구체적인 동시에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추상을 요체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폄훼의 과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양의 유명 화가를 그저 따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상화의 과정은 생산이지 흉내가 아니에요. 추상은 압착, 정유, 향기를 추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핵심을 짚고, 요체에 다가가는 것이지요. 용어의 함정에 빠져서 추상을 하나의 양식이라고 오해해선 안 됩니다.”

“나는 제주 바다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린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어렸던 나를 존중합니다. 열 살짜리 강요배가 지금의 강요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대로의 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변신을 하지 못했더라고. 청년 강요배도 “너 딴 쪽으로 변해볼 수 있겠어?” 묻는 것 같은데, 나 또한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닌데, 그걸 못 했더라고요. 내게 출발점은 화가가 아니었어요. 종착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예술은 둘째죠, 삶이 먼저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실망하려나. 사실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고 한 인간의 삶일 뿐입니다. 내 작업은 삶의 보고서일 뿐이에요.”

5. 작가의 글

『풍경의 깊이』(돌베개, 2020)에 실린 강요배의 글 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대표작품

작가의 글



〈노야(老野)〉

2011

캔버스에 아크릴릭

194x259cm

나의 자호는 노야老野, 늙은 들판이다.



〈설오(雪鳥)〉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먹

116.5x91cm

사물을 파악할 때 주체와 대상이 통일되면 제일 온전한 인식이라고 본다. 너무 거리감을 두든가, 또는 완전히 대상 안에 몰입하든가, 혹은 너무 왜곡해서 갈라서고 초월하는 상태가 아니라,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몰입되거나 왜곡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내가 아는 만큼이 바로 그 대상 아니겠는가.



〈파도와 총석〉

2011

캔버스에 아크릴릭

259x388cm

과거를 내장하고 미래로 열려 있는 현재를 생각해 본다. 비유컨대 생물체의 유전자나 거목의 나이테, 대지의 지층 같은 것이다. 이로부터 기억의 보존인 역사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새로운 몸을 만드는 필수 요소가 된다.



〈홍도 II〉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91x116.5cm

강한 명암 대비나 필세의 강도를 줄일수록 그림이 부드러워지는 한편, 오히려 대상을 표현하는 감정은 커진다.



〈사연(思蓮) I〉, 〈사연(思蓮) II〉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각 116x91cm

달이 메밀밭을 비추는 것이 아니다.

메밀밭이 달을 비춘다.

낮에 나온 옅은 달, 소월素月이다.



〈우레비(雷雨)〉

2017

캔버스에 아크릴릭

259.5×364cm

아직 더 해야 한다.

좀 더 비어 있는 상태로,

좀 더 자유분방하게,

좀 더 부드럽게.

6. 작가 약력

1952 제주 출생

197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제주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20 금강산과 DMZ,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

2018 메멘토, 동백, 학교재, 서울

상(象)을 찾아서, 학교재, 서울

2016 제27회 이중섭미술상 수상작가 강요배 초대전, 시간의 창, 이중섭미술관, 제주

한국현대미술작가, 강요배: 시간 속을 부는 바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5 제27회 이중섭미술상 수상기념전, 소리,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14 강요배 그림 <소나기> 원화전, "소년, 소녀를 만나다", 제라진 그림책갤러리, 제주

강요배 소묘: 1985-2014, 학교재, 서울

2013 학교재, 서울

2011 풍화,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제주

2009 강요배의 습작시절, 제주교육박물관, 제주

2008 스침, 학교재, 서울

제주43 평화기념관 개관기념 특별전: 강요배의 43역사화-동백꽃 지다,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2007 섬 빛깔, 제주문예회관, 제주

2006 땅에 스민 시간, 학교재, 서울

아트스페이스 씨, 제주

2003 학교재, 서울

- 1999 금강산, 아트스페이스 서울, 서울
1998 4·3 50주년 기념-동백꽃 지다, 학교재, 서울; 세종갤러리, 제주; 송원갤러리, 광주; 가톨릭센터, 부산; 월성문화관, 대구
1995 섬 땅의 자연, 조현화랑, 부산
1994 제주의 자연, 학교재, 서울; 세종갤러리, 제주
1992 제주 민중항쟁사, 학교재, 서울; 세종갤러리, 제주; 단공갤러리, 대구
1976 각(角), 대호다방, 제주

주요 단체전

- 2020 MMCA 소장품하이라이트 202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9 2010-2019 DECADE: 지금까지, 그리고 모색, 기당미술관, 서귀포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제주작가 조명전: 99+1,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 기념전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2부. 1950-201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소화(素畵) - 한국 근현대 드로잉, 소마미술관, 서울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 대구미술관, 대구; 국립현대미술관, 뉴델리
인물, 초상 그리고 사람 - 한국 근현대인물화, 갤러리현대, 서울
정태춘 박은옥 40주년 기념전: 다시, 건너간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18 이야기 사이, 경기도미술관, 안산
4·3 70주년 특별전, 포스트 트라우마,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4·3 70주년 동아시아 평화인권전, 침묵에서 외침으로,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2017 코리아 투모로우 2017 해석된 풍경, 성곡미술관, 서울
제주정신,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
제주비엔날레, 한라살롱,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허우당씩, 문화공간제주아트 갤러리, 제주
4·3 미술 아카이브: 기억 투쟁 30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삼라만상 : 김환기에서 양푸둥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6 아리랑 랩소디,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제주-라비니츠 현대미술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백화만발 만화방창 - 백 개의 그림, 만 가지 이야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가나아트 컬렉션 앤솔러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 아시아 사회현실주의 1. 무망도, 학교재 상하이, 상하이
제22회 4·3 미술제, 얼음의 투명한 눈물,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광복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 예술과 역사의 동행, 거장들의 세기적 만남,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15 평창비엔날레, 생명의 약동, 알펜시아, 평창
지금, 여기,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제6회 제주·일본 신화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제주문예회관, 제주
2014 광주비엔날레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슬-1980 그 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제21회 4·3 미술제, 오끼나와 · 타이완 · 제주 사이: 제주의 바다는 갑오년이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바람을 흔들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현대미술의 흐름Ⅶ-리얼리즘,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공재 윤두서,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생명의 숨, 신화의 방, 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

- 동백꽃 지다, 소노마 카운티뮤지엄, 산타 로사, 미국
새봄의 항해, KBS제주방송총국, 제주
인도네시아-한국 작가 기획전, 낮은 흐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2013 탐라미술인협회 20주년, 섬,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두 섬의 확정,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자카르타; 토니라카 갤러리, 발리, 인도네시아
제20회 4·3 미술제, 공(龕), 여러개의 시선들,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충북민족미술 아트페스티벌, 현실미술과 미술의 시대정신, 우민아트센터, 청주
풍경-그림을 그린다는 것,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 2012 제4회 제주·일본 신화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제19회 4·3 미술제, 식구(食口),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DMZ 평화미술+책프로젝트, 겨울 겨울 겨울, 봄, 경기도미술관, 안산
모성,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 2011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대지의 꿈, 인사아트센터, 서울
제7회 제주신화전, 깊고 깊은 시선, 제주문화포럼, 제주
제3회 제주·일본 신화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사야마이케 박물관, 오사카
구름비가 운다, 아트스페이스 씨, 제주
공존 그리고 상생,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 2010 현실과 발언 30년 사회적 현실과 미술적 현실, 인사아트센터, 서울
제2회 제주·일본 신화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제주문예회관, 제주
화산섬 제주의 삶, 풍경, 제주문예회관, 제주; 우에노모리미술관, 도쿄
노란 선을 넘어서, 경향갤러리, 서울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 63 스카이라트 미술관, 서울
한국 드로잉 30년: 1970-2000, 소마미술관, 서울
- 2009 제주 세계자연유산 특별전-자연의 신화,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09 평화 미술제-대지의 꽃을 바다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제주미술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아시아 그리고 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 2008 오늘의 한국미술_미술의 표정,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제10차 람사르총회 기념 특별전,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민중의 고동: 한국 미술의 리얼리즘 1945-2005, 반다이지마 미술관, 니가타,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미야코노조 시립미술관, 미야코노조, 일본; 오오타니 기념미술관,
니시노미야, 일본; 후쿠 시립미술관, 후쿠, 일본
- 2007 코리아 통일 미술전, 부산민주공원, 부산
남해안 비경 베스트100선,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거제문화예술회관, 거제
제14회 4·3 미술제, 다시 그 곳에 서서, 제주문예회관, 제주
신화를 삼킨 섬-제주 풍광,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2005 제주-발리, 토니라카 갤러리,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제주, 제주문예회관, 제주
길에서 다시 만나다, 부산민주공원, 부산; 광주5·18기념 문화관, 광주; 태백 문화관, 태백; 청주
예술의전당, 청주;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서울
제12회 4·3 미술제, 동행, 제주문예회관, 제주

- 2004 제13회 제주미술제, 열린 시공을 향한 제주형, 탐라색,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 기당미술관, 서귀포
바람의 신화 2004, 제주문예회관, 제주
정물예찬, 일민미술관, 서울
평화선언 2004 세계 100인의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길에 관한 명상, 제주문예회관, 제주
제6회 제주·충북 문화예술교류행사, 생명, 평화, 기당미술관, 서귀포
제11회 4·3 미술제,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을 만나다, 제주문예회관, 제주
- 2003 제10회 4·3 미술제, 진실의 햇불 밝혀 평화의 바다로, 제주문예회관, 제주
진경-그 새로운 제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깊은-그림, 대안공간 풀 서울
탐라미술인협회 10주년, 신산갤러리, 제주
1901년 제주항쟁기념 역사미술전,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 2002 제9회 4·3 미술제, 테러, 제주문예회관, 제주
풍토-바람 땅, 구름 뒀, 충북문예회관, 청주
민족미술 20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지금 그 사람, 세종갤러리, 제주
제비울미술관 개관전, 제비울미술관, 과천
- 2001 제8회 4·3 미술제, 한라와 무등-역사의 맥, 제주문예회관, 제주
제주의 습지전-목 긴 청개구리, 세종갤러리, 제주; 갤러리 제주아트, 제주
생명으로의 초대, 학교재, 서울
4·3과 노근리, 청주예술의전당 청주문화관, 청주
기초/전망, 서울미술관, 서울
제13회 조국의 산하, 바람바람바람, 광화문 갤러리, 서울
아름다운 생명, 예술마당 술, 대구
- 2000 제3회 광주비엔날레, 인간(人+間),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해양미술제 2000, 세종문화회관, 서울
제7회 4·3 미술제, 역사가 서린 땅, 제주문예회관, 제주
2000 충북·제주문화예술만나기-물길 고갯길 사람의 길, 제주문예회관, 제주
제주의 풍속화, 세종갤러리, 제주
- 1999 제6회 4·3 미술제, 보이지 않는 손, 보는 눈 - 4·3과 미국, 제주문예회관, 제주
제주미술 맑은 바람, 세종갤러리, 제주
- 1998 우리 들꽃, 사비나갤러리, 서울
제5회 4·3 미술제, 상극의 빗장을 열고 상생의 아름다움으로, 제주문예회관, 제주
잘못된 만남, 사비나갤러리, 서울
- 1997 제4회 4·3 미술제, 자연·사람·역사, 제주문예회관, 제주
한국의 미를 찾아서, 사비나갤러리, 서울
기당미술관10주년, 기당미술관, 서귀포
- 1996 전통과 현실의 작가 17인, 학교재, 서울
제3회 4·3 미술제, 4·3 그 되살림과 깨어남의 아름다움, 세종갤러리, 제주
사라진 제국의 숨결을 찾아서: 네번째 실크로드 미술기행, 동아갤러리, 서울
동시대 작가,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제8회 조국의 산하, 강-내일로 흐르는 삶의 도도함처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1995 제1회 광주비엔날레, 광주5월 정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광주 통일미술제, 망월동 묘역, 광주
해방50년 역사미술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제2회 4·3 미술제, 낮이여 오라, 세종갤러리, 제주
9인 작가초대전, 갤러리 제주아트, 제주
1945-1995 해방 50년 역사의 지층, 현실의 꽃, 세종갤러리; 갤러리 제주아트, 제주
1994 민중미술15년: 1980-199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제주미술 맑은 바람, 세종갤러리, 제주
제1회 4·3 미술제, 닫힌 가슴을 열며, 제주문예회관, 제주; 세종갤러리, 제주
1993 코리아 통일미술, 센트럴미술관 아넥스, 도쿄
제3회 제주미술제, 제주문예회관, 제주
12월전, 그 10년 후, 덕원미술관, 서울
1992 제2회 제주미술제, 제주문예회관, 제주
개관3주년 특별전, 오늘의 삶, 오늘의 미술, 금호갤러리, 서울
90년대 우리미술의 단면, 가람화랑, 서울; 갤러리 상문당, 서울; 학교재, 서울; 현 갤러리, 서울
1991 우리 시대의 표정-인간과 자연, 그림마당 민, 서울
18인전, 서울미술관, 서울
1990 젊은 시각-내일への 제안,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교육현장, 그림마당 민, 서울
현실과 발언 10년, 관훈미술관, 서울; 그림마당 민, 서울
그림마당 민 개관 4주년 기념전: 우리시대의 표정-인간과 자연, 그림마당 민, 서울
새벽의 숨결-동향과 전망, 서울미술관, 서울
1989 민족미술자리매김, 그림마당 민, 서울
조국의 산하, 그림마당 민, 서울
더불어 사는 삶, 예술마당 금강, 서울
삶의 터전을 되살리는 서화 · 도예, 그림마당 민, 서울
현대미술-새로운 시각, 세종갤러리, 제주
1988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 그림마당 민, 서울
1987 민족미술협회 반고문, 그림마당 민, 서울; 광주 카톨릭미술관, 광주
1986 JAALA, 도쿄도현대미술관, 도쿄
우리시대 30대 기수, 그림마당 민, 서울
1985 을축년 미술대동잔치, 아랍문화회관, 서울
1984 삶의 미술, 아랍문화회관, 서울; 관훈미술관, 서울; 제3미술관, 서울
현실과 발언, 6. 25, 아랍문화회관, 서울
해방40년 역사, 광주아카데미미술관, 광주; 전남대학교정, 광주; 대구 현대화랑, 대구; 부산 카톨릭센터,
부산; 마산 진화랑, 마산; 연대 중앙도서관 앞, 서울, 고대 학생회관 앞, 서울
1983 제1회 시대 정신, 제3미술관, 서울
1982 젊은 의식, 덕수미술관, 서울
현실과 발언, 행복의 모습, 덕수미술관, 서울
1981 현실과 발언, 도시와 시각, 롯데화랑, 서울
현대미술 워크숍 기획전,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1981-90 현실과 발언
1980 12월, 덕수미술관, 서울

관점미술동인전, 청년작가회관, 서울
1977-80 제1-9회 관점, 대호화랑,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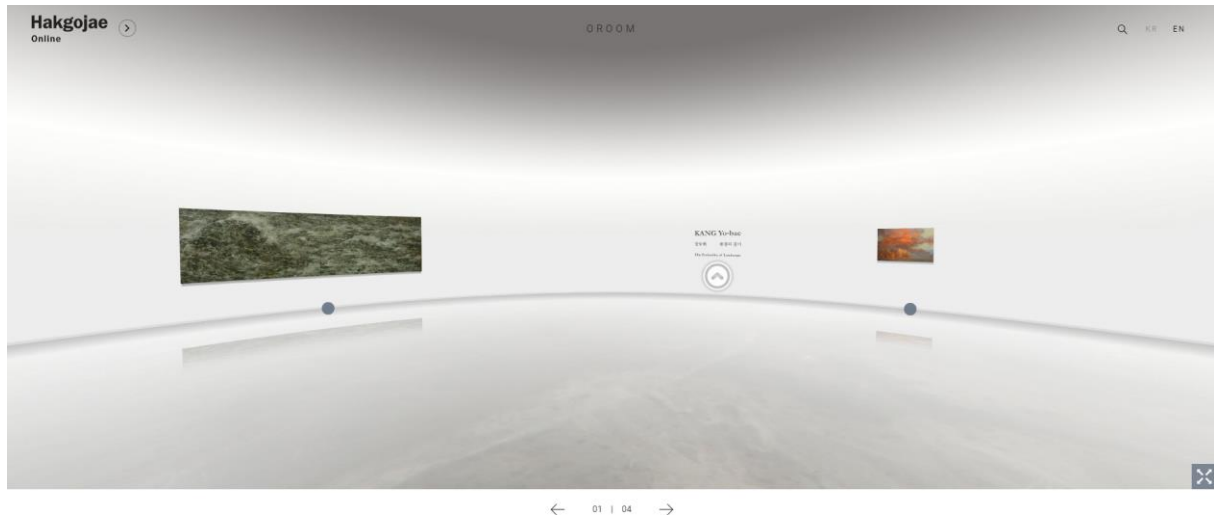
수상

2018 옥관 문화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세종
2015 제27회 이중섭미술상, 조선일보문화사업단, 서울
1998 민족 예술상,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서울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과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기당미술관, 서귀포

Hakgojae 'OROOM' Inaugural Exhibition
KANG Yo-bae: The Profundity of Landscape



KANG Yo-bae: The Profundity of Landscape

Exhibition Summary

Exhibition Title : **Hakgojae 'OROOM' Inaugural Exhibition *KANG Yo-bae: The Profundity of Landscape***

Exhibition Dates : 2020.10.27 – 2020.11.30

Exhibition Venue : OROOM (URL: online.hakgojae.com)

Inquiry : +82-2-720-1524~6

Artworks : 20 Paintings

Contact

Miran Park / miran@hakgojae.com

Yoonsung Cho / cho@hakgojae.com

Press Release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Text and images available inside '20201027-20201130_강요배, 풍경의 깊이'

Hakgojae Gallery newly introduces '**OROOM**,' a virtual reality exhibition space. The name is an abbreviation of 'Online viewing room,' and at the same time, signifies a circular exhibition space that can expand infinitely. When viewed in full-screen mode, the visual experience as if facing a vast exhibition space beyond the monitor is presented to the viewer.

Hakgojae Gallery proudly presents works by **KANG Yo-bae** (b. 1952) in his solo exhibition, ***The Profundity of Landscape*** in '**Hakgojae OROOM**' from October 27th (Tue) to November 30th (Mon), 2020. This exhibition celebrates the publication of KANG's first collection of writings, *The Profundity of Landscape* (Dolbegae, 2020), and KANG receiving the 21st Lee In Sung Art Prize.